

ANT(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 본 디자인 실험

Design Experiments as Seen through the Actor–Network Theory

임지연(아트노이드178)

Im Jiyeon (Artnoid178)

1. 서론
2.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환상
3. 행위자-연결망 이론
4. 근대성-인류학-준 대상
5. 준 대상으로서 공예
6. 전선에 선 디자인
7. 결론

브루노 라투르 등에 의해 정립된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인간과 비인간을 존재론적으로 평등하게 간주하고, 개체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한 개방적 사유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다. 디자인 및 디자인사 연구 방법의 고찰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먼저 ANT의 핵심 개념인 ‘일반화된 대칭성’의 이론적 근거로 라투르의 근대성 비판 작업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디자인만이 아니라 근대 학문 일반이 지니고 있는 비대칭적 시각을 보정하고, 학문의 자기규정 내지 자기 서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한다. 나아가 라투르의 ‘준 대상’ 개념을 기초로 디자인 연구 대상의 속성과 양태를 규명한다. 디자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영역에 등록될 개체들은 전적인 주체나 객체로 구분되기 이전의 매개적 행위자들이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기성의 사고 구조나 삶의 양식은 이 새로운 연합체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배치와 번역을 수행하는 ‘전선에 선 디자인’,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의 디자인’ 개념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행위자-연결망 이론, 라투르, 근대성, 준 대상, 디자인, 공예

The actor-network theory (ANT), which was established by Bruno Latour, is a theory that considers humans and non-humans ontologically equally as a model of open thinking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of individuals. For the study of design and design history research method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we examine Latour’s critique of modernity and the concept of “generalized symmetry.” Through this concept, not only design, but also the asymmetrical visions of modern academies will learn a valuable lesson, and the minimal conditions for self-regulation and self-description of the academic discipline will be implemented. Furthermore, on the basis of Latour’s concept of “sub-object,” I try to identify the properties and aspects of the design research object. The sub-objects in the field of design research can be seen as the active mediators before they are divided into subjects or objects. With the new emergence of human and non-human actors that have been concealed to date—and as they are specifically arranged—the traditional ways of thinking and past lifestyles should make way for this new coalition. For this change to take root, the concepts of “design in action” or “design in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can be used to suggest different ways to carry out new arrangements

and interpretations of those sub-objects.

Key Words

Actor-Network Theory, Latour, Modernity, Sub-object, Design, Craft

1. 서론

본 논문은 ANT(Actor-Network Theory,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초한 디자인 및 디자인사 연구 방법론 제안에 목적을 둔다. 1980년대 과학기술학(Science & Technology Studies, STS)의 한 분파로 시작된 ANT는 현재 과학학, 사회학, 교육학, 인류학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활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국내에서도 김환석, 이준석, 홍성욱 등을 중심으로 ANT의 기본 개념과 체계가 소개되었고, 여러 학문 분과에서 ANT를 통한 현장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ANT 관련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현장과 사례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¹⁾ 그동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론적 전모가

1 디자인 분야 ANT 관련 논문으로 최근 민수홍, 「사물의 문화,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의 상호구성성 이해 -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이해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권 1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가 있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조형연구에 활용한 연구로서, ANT의 이론적 특징 및 조형과 과학기술의 상호 구성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디자인 현장 연구가 아닌 ANT 관련 이론적 조망에 집중되어 있다.

드러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에, ANT에 대한 학문적 평가나 관련 연구의 동향에 대한 판단을 바로 내리긴 어렵다. 다만 포스트 휴머니즘과 신유물론 사유의 흐름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평등함을 강조하고, 개체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한 개방적 사유로의 전향은 많은 연구에서 ANT의 유의미한 특성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ANT 연구 경향 속에서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 먼저 ANT의 기본 전체에 대한 성찰로서,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브루노 라투르 등 ANT 핵심 이론가들의 초기 작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ANT는 근대성 비판 작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술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에서 라투르는 근대인들이 공간적 ‘정화’와 시간적 ‘단절’을 통해 중세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국면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로부터 ANT 중심 개념인 ‘일반화된 대칭성’ 개념을 정립한다. ANT를 다루는 연구들이라면 모두 이 ‘대칭성’ 개념을 거론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지만, 세부 논의 없이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론적 대칭성’ 정도로 결론만 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라투르의 근대성 비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ANT의 이론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라투르가 제시하는 ‘준 대상’ 개념을 기초로 ANT를 통한 디자인 연구 대상의 속성과 양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의 이성적 인간 주체 대신 행위의 새로운 주체성으로 대두된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망’은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구별이 아닌 두 영역을

연결하는 활동적인 매개자들에 주목하도록 한다.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이들은 전적으로 주체이지도 또한 객체이지도 않다. ANT를 통한 연구는 인간 이성이 주체적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 역시 연결망 내의 한 행위자로 등록시킴으로써 그동안 소위 그 '주체적 시각'을 통해서만 확보하지 못했던 보다 많은 행위자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 주체와 객체의 뚜렷한 이분법을 통해 주변적 지위에 머물렀던, 혹은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했던 가려진 행위자들을 '모아' 새로운 인간-비인간 연결망을 짜려는 것이 ANT의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성 권력 구조와 욕망을 새로이 구성하려는 정치 실험과도 같은 것으로, 학문 연구만이 아니라 현장 정치, 나아가 근대와는 다른 '비근대적 삶'의 양식을 구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디자인 연구에서 '준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대 '공예' 개념의 생성 국면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및 디자인사 연구에서 학문적 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는 다수의 행위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 혹은 '일반화된 대칭성' 개념이 지니는 이론적 강점은 학문의 정신 혹은 연구 주체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 할 때, 그가 외부 대상을 관찰하고 서술할 때와 동일한 시선으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자기 성찰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디자인의 명시적 본질이나 실질적인 디자인사를 다루지는 않는다. 또 ANT를 통한 구체적인 디자인 사례 연구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연구를 위한 일종의 전제 작업으로서 디자인의 연구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려고 할 때

연구 주체에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학문적 선입견을 점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환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물음은 학문 내지 전문 영역을 연구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각각 다른 답을 제시한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난제가 등장한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테이블에 대학 교수 두 명과 치킨회사 관계자가 앉아 있다. 이 테이블은 대규모 영화사가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지 여러 주장과 사건들을 모아 '달걀이 먼저'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두 번째 테이블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연구진들이 앉아 있다. 이들은 '닭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OC-17', '탄산칼륨', '방해석', '난소' 등 '객관적'(으로 보이는) 입자와 기관을 발견했고, 이러한 발견을 위해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까지 했다. 두 가지 상반된 주장 중 우리에게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보이는 것은 어느 쪽인가?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왜 그럴까? 전자는 단순 주장만을 담고 있는 반면 후자는 특정한 물질들과 테크놀로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들의 결론이 보다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전자가 영화 DVD 홍보를 위한 연구였다면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 이와 같은 확신은 보다 강력해 진다. 이로써

최소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의 오랜 논쟁이 종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닭이 먼저’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확보되었다. 우리는 더는 이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닭과 달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손에 넣었고, 이렇게 인류 지식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였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과 이에 필요한 요소, 지식 생산의 주체, 지식이 지니는 성격 등을 잘 보여준다. 최소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지식은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나 이해관계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확보된 객관적 지식은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갈등 상황 속에서 모든 혼란을 잠재운다. ‘이것이 진리이니 내 말을 따르라.’ 물론 한번 수립된 과학적 지식 역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의해 때면 도전받는다. 사실을 알기에 이러한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갈등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당대에 사실이라고 ‘믿는’ 지식에 의존하여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그런데 믿음일 뿐인 하나의 사실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 사례로 돌아가서, 전자는 단순 주장과 사건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후자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근거가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뒤집어진다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지식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 만일 두 번째 연구가 ‘알 전문가’나 ‘알’ 관련 회사가 아니라 ‘닭 전문가’나 ‘닭’ 관련 이익단체에 의해서 조직된 것임이 밝혀지더라도 한다면, 이들이 발견해 낸 그 많은 ‘과학적’ 물질들과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보냈던 신뢰는 모두 무엇이 될까?

주관성과 객관성,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진리, 믿음과 이성 사이에서 소위 지식 내지 학문, 나아가 전문 영역의 구성을 위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현대의 지식체계는 당연한 듯 객관성과 과학, 이성의 편에 선다.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전문 영역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지식체계의 이면, 즉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 정립되기까지 ‘이미 연결되어 있던’ 주관성과 합의와 믿음의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달걀이 먼저라는 결론에서 우리는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합의 과정과 이해당사자의 개입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식 영역 밖으로 밀어낸다. 닭이 먼저라는 결론에서 우리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듯 보이는 물질과 컴퓨터를 발견한다. 그러면서 그 물질들의 발견과 기계의 사용 역시 연구진들이 믿고 따르는 지식 내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은 잘 보지 못한 채로, 이를 하나의 객관적 지식으로 삼는다. 그럼 결국 지식의 체계란 다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학문과 지식체계의 정립을 위해 우리는 사회문화적 측면만을 살피면 된다는 것인가?

ANT는 주관과 객관의 명확한 분리 속에서 정립된 학문 내지 지식의 속성에 대한 이와 같은 회의에서 출발한다. 실상 주관적이라 생각하는 합의의 영역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의 영역은 이분법적으로 확고하게 구분되지 않고 철저히 매개되어 있다. 나아가 이들 양 영역의 매개는 관념적으로 제3의 개념 항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종합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하는 활동’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정한 관계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양자의 중간지대인 ‘행위자들의 매개하는 활동’에 주목하는 ANT의 기본 이념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행위자-연결망 이론

1970년대 과학기술학(Science & Technology Studies, STS)의 한 분과인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대표적 학자인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는 ‘행위자를 추적하라(you have to follow the actors themselves)’는 모토로 ANT의 이론적 지향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 등은 당대 과학기술학의 중심이었던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SSK)의 학문적 태도에 비판적이었다. SSK는 당시 만연되어 있던 학문적 선입견, 즉 과학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과학과 이데올로기에 ‘대칭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과학이든 이데올로기든 어느 한 쪽을 합리와 비합리로 나누지 말고 양자를 동일한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SK의 이 같은 원리도 곧 막다른 길에 도달하는데, 해석을 위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때 이들 스스로 비대칭적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SSK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 실재란 원천적으로 불가지의

영역이며, 이는 다만 인간의 인식이 구성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인식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실재론이 아닌 관계론적 사고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작 이들은 그러한 인식의 구성 과정 역시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즉 ‘과학에 대해서는 구성주의적이 되면서도 사회에 대해서는 실재론자가 되는 것이다.’²⁾

SSK의 이 같은 한계를 라투르와 칼롱은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과학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든 사회에서 구성된 담론이든 이들은 처음부터 양극으로 분리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자연 사실과 사회 담론을 ‘있는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리되기 이전 시점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미분적인 지점에서 양자를 똑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과 담론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대칭적 원리에 따라, 쉽게 말해 공평한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생의 첫 출발 지점에서 하나의 사물이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안정화될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판단도, 혹은 객관적이라 할 지식의 ‘형태’도, 또 주관들의 덩어리인 이데올로기란 ‘말’도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다만 ‘행위자들(actors)’ 뿐이다.

2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 (갈무리, 2009), p.242

우리가 추구하는 설명으로 분명 자연과 사회를 획득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이지 기원으로서가 아니다. 자연이 공전을 하지만 주체/사회를 그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 자연은 사물과 인간을 생성하는 집합체 주위를 선회한다. 주체는 공전하지만 자연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인간과 사물이 발생하는 집합체를 중심으로 공전한다.³⁾

인용문에서 보듯 행위자의 행위자성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사물에게서도 발견된다. 라투르는 지식과 담론, 자연과 사회/인간으로 구분된 오랜 이분법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습관화된 인식에 따른 것일 뿐, 그러한 인식 이전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단지 인간과 비인간의 '집합체'가 있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연합은 개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식이나 상식으로 안정화되기도 하고, 역사책의 한 귀퉁이에 작게 적히기도 하고, 또 있었는데도 모르게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가? 라투르는 이를 '번역(translation)'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번역'은 인간-비인간의 집합체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 확산하는데 사용되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설득해야 할 상대에 따라 목표를 바꾸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일, 또 구성원들을 새로 만들거나, 자료를 은폐 내지 추가하는 일,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의 최종

공적을 배분하는 일 등을 말한다. 번역 작업이 종결되어 목표가 달성되면 질서나 상식으로 안정화되고, 헤게모니를 획득한다.⁴⁾

한편 성공적인 번역작업으로 이중적인 집합체가 하나로 응축되고 단순화된 상태를 라투르는 '블랙박스(black box)'화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별문제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를 블랙박스화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권력을 뒤집고자 한다면 블랙박스를 해체하여 인간-비인간 동맹의 더욱 '기다란 목록'⁵⁾을 확보하면 된다. 새로운 결합을 시도할 때 중요한 것은 구성 개체들이 인간인지 비인간인지, 혹은 과학적인지 사회적인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가 아니다. 과연 새로운 동맹이 다른 것에 비해 견고하고 강력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

물리학과 전자를 자기네 편으로 되돌아오게끔 유인하는 시도를 하려면 값비싼 실험실을 마련해야만 하는데, 벨이 몰아낸 작은 회사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다른] 실험실들이 이제 이런 책략의 중심을 차지하며, 세력의 광대한 저장소를 구성하는 새로운 행위자들은 그 책략을

3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204

4 브루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황희숙 옮김, (아카넷, 2016), pp.216-242

5 브루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p.255

통해 동원된다. 새롭고 보이지 않는 행위자들을 대표하여 말해 줄 수 있는 대변인들은 이제 힘의 균형이 그에 의지하는 핵심축과 같다. 전자의 새로운 특성, 배양기에서 더 짙은 농도, 그리고 소집된 전체 회중은 흩어져 해체되든지, 아니면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한데 묶인 것들이다.⁶⁾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 ‘인간-비인간 동맹’, ‘번역’, ‘블랙박스’ 등은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핵심 개념들이다. 이 개념들을 통해 라투르는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과 그에 동반되는 사회 변화의 국면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실험 공간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사실의 구축과 실험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 등의 인공물은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다. 기술 등의 비인간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이런 의미에서 비인간은 인간과 같은 행위자로서 인간에게 대칭적이다.’⁷⁾ 또한 라투르의 위 인용문에서도 감지되는 바이지만, 지식 생산의 과정은 헤게모니 다툼의 살풍경으로 보인다. 라투르는 이를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그의 책 제목으로도 사용된 ‘Science in Action’이라는 표현은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 중인 과학(Science in the Making)⁸⁾, 또는 기성 과학 내지

블랙박스화된 과학에 대항하는 ‘전선에 선 과학’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과학은 언제나 생성 중이고, 여기서 생성이란 말은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자신의 영역 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가리킨다. 라투르에 비해 존 로의 정리는 좀 더 부드럽게 들린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어떻게 행위자와 조직들이 그들을 이루는 부분과 조각들을 동원하고, 배열하며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부분과 조각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따라가다가 결국 행위자와 조직이 해체,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막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번역의 과정을 숨기고 다양한 부분과 조직들로 구성된 자신을 이중적 연결망 대신 규칙화된 행위자로 보이게 할 수 있는지⁹⁾에 주목한다.

4. 근대성-인류학-준 대상

‘만들어지는 과정 중의 과학’, ‘전선에 선 과학’을 추적하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지식 생산의 과정에 어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합해 있고, 어떤 번역 전략을 구사하여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 가는지 그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역자 해제, p.511

9 John Law,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in *Systems Practice* 5(4)(1992), pp.379-393,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확인 p.5 (Centre for Science Studies Lancaster University, <http://comp.lancs.ac.uk/sociology/soc054j.html>), (2020.8.27);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pp.37-56, p.50

6 브루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p.256

7 브루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역자 해제, p.512

8 브루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려는 시도이다. 이는 인류학적 방법론에 가깝다. 라투르 역시 자신을 “과학적 실천에 민속지학적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¹⁰⁾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사회인류학이나 문화인류학이 문화들을 다루고 있다면, 자신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인류학을 통해 자연을 다루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¹¹⁾ 그렇다면 복잡하게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따로 제시할 것 없이 인류학이나 민속지학의 연구 방법을 자연과 과학에 적용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하였던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는 역시 인류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주지하듯 인류학은 근대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정립된 학문이다. 현재는 거의 모든 학문이 그렇듯 전 지구적 차원으로 보편화되어 동양권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여러 분과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라투르가 보기에 결국 인류학은 철저히 서구의 근대적 학문으로서 비대칭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일단 라투르에게 근대라는 시기, 대략 17세기부터 19세기는 인류 역사상 대단히 독특한 시대이며, 그 독특성이란 일종의 분열증과 같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가 보기에 근대의 주된 기획은 그 이전 시대에는 이미 매개되어 있는 채로 있던 자연-인간-신의 영역을 이성과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철저히 분리해 내는 것이었다. 즉 순수한 자연의 객관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아가 이러한 자연과 인간에게 신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근대인에게 세계는 이렇듯 세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분리에 기초한 세계관은 이내 근대 헌법의 체계로 자리 잡는다. 라투르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일과 홉스에게서 발견한다. 보일은 실험 과학을 기초로 자연 사실들을 증명해 냈다. 홉스는 인간 사회란 계약에 의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명증해 보이는 이러한 사실들은 실상 보일일 수 은과 공기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실험도구 안에서 그의 조수가 숨이 넘어갈 듯 파이프를 불고 있었다는 점을 감추고 있다. 또 그는 자신의 이론을 확산하기 위해 이 실험을 소위 전문가들 앞에서 시연했다. 전문가들은 실험도구라는 ‘거대한 과학’ 안에 사람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보일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들의 동조는 단순한 사견이 아니라 과학적 도구를 통해 증명된 것인 만큼, 그들은 스스로 객관적이라 자부했다. 마찬가지로 홉스가 구상한 리바이어던은 오직 시민, 계산, 동의, 혹은 분쟁으로 구성된다지만, 그의 저술 리바이어던의 표지에서도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실제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들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개체들을 포함하고 있다(홉스 자신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보일이 자연의 순수하고 객관적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과 여론몰이라는 인공적이고 사회적인(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이기까지 한)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또 홉스가 사회란 계약이라는 인간적 행위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10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6

11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6

위해 애써 비인간 사물들에 눈감았음에도, 근대 헌법은 이들 자연과 사회를 아무 문제없다는 듯 나란히 배치하였다. 여기서 신은 어디에 있는가? 자연에서든 사회에서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이 호출된다. ‘자연의 이러한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혹은 ‘계약은 천부적인 것이니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노라.’¹²⁾

자연-인간-신의 분리는 근대적 세계 구성만이 아니라 근대 학문이 소위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실험실의 진리와 계약의 초월성은 드러나는 모습들은 상이하더라도 성격은 동일하다. 인간의 이성에 붙잡힌 자연은 그렇지 않은 야생과 구분되며, 계약 관계로 질서 잡힌 세계는 야만과 구분된다. 근대 학문의 이 같은 성격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것이 라투르가 본 서구의 인류학적 방법론이다. 근대 학문으로서 인류학은 인간과 비인간을 극단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철저히 달성하고 있는 서구를 비서구와 분리한다. 그들은 비서구인들이 자신들과 달리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사회, 지식과 문화를 여전히 매개하고 중첩하는 모습을 보며 ‘야생의 삶’ 혹은 ‘야만’이라고 규정한다.

근대성과 근대 학문의 문체는 스스로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 상대적으로 비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매개자를 망각(혹은 간과, 혹은 보면서도 못 본 척)한다는 점이다.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관찰, 분석, 결과 도출, 결과 보고, 지식 수립 및 확산에 이미 여러 인간과 비인간 개체들이 하이브리드 되어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라투르는 인류학이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서양에서의 인간과 비인간의 극단적인 구분과 서양 이외 지역에서의 사회와 지식의 완전한 중첩 모두에 대한 믿음을 버림으로써, 동시에 [그러한] 대분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식에 관한 전면조사와 지적인 재정비¹³⁾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류학의 재정비를 위한 라투르의 기획은 ‘준 대상’을 증식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준 대상’이란 근대 학문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인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대분할 사이에 놓인 영역을 말한다. 대분할 사이, 상반되는 항들의 양극에 접해있다는 점에서 준 대상은 ‘매개자’라고도 볼 수 있다. 준 대상으로서 이 매개자는 어떤 하나의 실체이거나 변증법적 사고에 따른 제 3의 결과항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준 대상은 :

훨씬 더 사회적이고 더 조직된 산물이며 자연의 견고한 요소들보다도 더 집합적인 성격을 띠지만 반면 결코 완성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자의적인 수용체가 아니다.

12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p.49-131

13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256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준 대상은 사회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투사할 필요가 있는 무형의 스크린보다 훨씬 더 실재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객관적이다.¹⁴⁾

준 대상은 ‘자연이나 사회, 혹은 주체에 속하지 않으며 언어의 것도 아니다.’¹⁵⁾ 어느 한 편으로 완전하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하이브리드적 속성으로 인해 준 대상은 세계 구성의 실상임에도 분할과 분리에 특화된 근대의 시각에 의해 폐기되고 부정되었다. 그렇게 간단히 소멸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 매개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양자를 연결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스스로는 아무런 존재론적 지위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일하게 실재하는 두 존재, 즉 자연과 사회의 힘을 수송하고 운반하고 전달할 뿐이다.’¹⁶⁾

단지 매개 작용을 할 뿐인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무엇일까? 준 대상이란 바로 앞에서 설명하였던 인간과 비인간 개체가 행위자로서 작용하는 집합체를 말한다.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는 바로 이 행위자들의 연합이 형성하는 구체적인 배치 관계들로 관찰된다. 우리가 자연과 사회라는 양극에 축적된 본질들을

중간 매개자들로, 즉 인간과 비인간 사물들이 수행하는 행위들로 귀속시키자마자 그동안 ‘자연’이나 ‘사회’라는 말로 (혹은 ‘지식’이나 ‘문화’라는 말로) 보호하고 있던 조작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바로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과 사회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다. ‘보일에게도, 공기의 탄성에도, 공기 펌프에도, 왕에게도, 홉스에게도 무언가 실제로 일어난다. 이들은 모두 변화한다. (...) 모든 본질은 동일한 이유에서 사건들이 된다. 역사는 더는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자연 사물들의 역사도 된다.’¹⁷⁾

준 대상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라투르가 궁극적으로 구상하는 비근대적¹⁸⁾ 연구 방법이기도 출된다. 근대의 학문적 기획은 주체(혹은 지식)가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수많은 신화의 모입이다. 주체의 세계 구성적 기획은 보일과 홉스에서 상징적으로 출발해서 인식 주체와 물자체를 구분한 칸트에게서 철학적으로 정식화된 뒤, 이어 자연과 정신 사이의 모순에 기초한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철학, 후설의 현상학,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등을 통해 양자의 간극을 더욱 확장하다가 결국 극성

14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149

15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171

16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207

17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210

18 비 근대성은 라투르가 근대성에 대한 비판 작업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근대성 비판 작업은 크게 근대적 과업에 대한 전면적 반대향을 정립하는 반근대적 태도와 여하한 근대성 담론의 자기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자는 탈-근대적 태도로 정리될 수 있다. 라투르는 반 근대가 근대를 대립자로 놓고 있는 한 여전히 근대와 동일한 논리 구조 속에서 움직이며, 탈근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성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비판한다.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고 역사의 현실적 궤도에서 벗어나 버린다. 관념적으로 출발해 탈근대로의 지향성을 지니는 이 운동은 어느 경우든 행위자들의 현장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이에 라투르는 근대 이후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다른 측면에서 조망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이제 우리에게는 ‘주체가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¹⁹⁾’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필요하다. ‘역사의 이 다른 절반의 증인들은 텍스트나 언어가 아닌 침묵으로, 펌프들, 돌들, 조각상들과 같은 적나라한 잔류물들로 이루어져 있다.’²⁰⁾ 인간과 비인간 집합체가 함께 ‘소용돌이치는²¹⁾’ 준 대상에서 출발하는 역사는 서구이든 비서구이든, 근대이든 전근대이든 결국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반증한다.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대상과 하나의 주체, 혹은 하나의 사회를 원시적으로 관찰하고, 다른 대상, 주체, 사회를 근대적이라고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련의

19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211
 20 브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p.211
 21 준 대상의 형상을 ‘소용돌이’에 비유하는 것은 라투르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헤르메스의 철학을 상기시킨다. 근대 이후 학문의 ‘국지성’은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학문의 각 영역은 자체의 체계성과 자율적인 진리관을 지니며, 그로 인해 다원성과 상대성이 옹호되는 것이 근대 이후 학문 영역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세르는 이러한 국지성을 인정하면서도 철학의 과제를 ‘총체성’에서 찾고자 한다. 물론 그의 총체성은 실체나 전체 이념 중심의 전통적 총체성이 아니라 시간과 운동 계기가 포함된 총체성으로, 영역 간의 ‘짧은 여행’으로 그려지는 노마드적 특성을 보인다. (이정우, 『미셸 세르와 헤르메스의 철학』, 『철학과 현실』 제27호, 『철학문화연구소, 1995』, p.173

교체와 탈구, 번역을 통해 사람과 사물들이 유례 없이 대규모로 동원²²⁾되는 모습이 발견될 따름이다.

5. 준 대상으로서 공예

준 대상과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인류학을 다시금 정비하는 라투르의 작업은 모든 지식과 전문영역이 자신의 학문적 본질을 서술하거나 그 역사를 그려보고자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과학과 인류학이 준 대상, 즉 자연과 사회 내지 지식과 문화, 혹은 야만과 문명,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되기 전 인간과 비인간의 소용돌이 집합체에서 시작하듯이, 디자인 역시 그것의 자연적 본성과 사회구성적 담론으로 안정화되기 전, 양자의 출발점인 준 대상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준 대상의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디자인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다. 또 디자인의 역사라고 할 어떤 실제적인 행위자들,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아직 발견하기 전이다. 여기에 어떤 인간-비인간 개체들을 등록할 것인가, 디자인 역사의 전면에 누구를 등장시킬 것인가?

디자인의 본질 규정과 실제적 역사 서술을 인간-비인간 집합체의 행위를 추적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할 때 글렌 아담슨(Glenn Adamson)의 저술 『공예의 발명(The Invention of Craft)』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감을 준다.

22 이정우, 『철학과 현실』 제27호, p.215

자신의 관점이 일면 브루노 라투르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²³⁾, 이 저술에서 공예에 대해 소위 상식으로 굳어진 지층들을 하나씩 걷어내며 (라투르식으로 말하자면) '실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의 공예', '전선에 서 있는 공예'의 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아담슨의 기획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공예는 기술 문명에 의해 위협받거나 손기술 등 인간의 신체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지닌다. 이에 반해 아담슨은 공예가 소위 산업혁명 시기 기계화, 공장 시스템, 대량 생산, 노동 분업 등 새로운 생산 조건의 등장과 함께 발명된 근대의 시대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예는 기계 문명의 대립적 타자나 배경이 아니라 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분화되어 갔으며, 공예의 이 같은 분화작업은 도자, 섬유 등 전통적인 공예 매체를 비롯해 조각, 패션, 디자인, 재료 공학, 아마추어 작업 등 창작 영역 일반을 형성하였다.

공예를 근대의 발명으로 보는 아담슨의 생각과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분리와 정화에 기초하여 학문 및 인간 활동을 규정하려 했던 근대의 이성적 프로젝트와 달리, 실제 근대성은 다수의 하이브리드들, 즉 인간 및 비인간 개체들의 긴밀한 매개 작용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분리 및 정화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근대적인 방식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지만, 분리가 아닌 준 대상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같은 사물이나 활동도 비근대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아담슨이 지적하듯 공예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안정화된 것은 초창기 민속지학자들이 공예를 규정하였던 자못 관대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이들에게 진본성과 창의성 등의 관념과 함께 일종의 비극적 색채를 함께 심어 넣었다. 공예의 긍정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국면은 주지하듯 오래된 유럽 중심주의 지배구조 속에서 빚어진 것이다.²⁴⁾ 아담슨은 공예에 부여된 이 같은 관념성, 예컨대 수작업의 순수함, 자유로운 장인, 영혼의 숨결 등의 이념이 민속지학의 경우에서 보이듯 근대적 조건 하에서 덧씌워진 것은 맞지만,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공예의 실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공예가 지니는 낭만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관념들은 그 자체 공예의 전문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공예를 산업이나 다른 것에 비해 주변부의 것, 지속적으로 개발, 계몽될 필요가 있는 것, 혹은 완전히 지나간 과거로 인식하도록 한다.

아담슨에 따르면 근대가 부여한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근대라는 현행적인 무대에서 운동하는 공예는 그리 순수하지 않았다. 또 손기술에만 의존하지도, 실존적으로 자유롭지도 않았다. 공예를 둘러싼 기존 관념을 타격하는

23 글렌 아담슨, 『공예의 발명』, 김정아 외 옮김, (미진사, 2017), p.44

24 글렌 아담슨, 『공예의 발명』, p.35

일이 일견 공예를 흠집 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담슨은 이를 보다 많은 잠재력 속에서 공예를 새로이 배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폭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실상 아담슨이 사례로 제시하는 많은 경우들에서 우리는 공예의 조작 활동과 이러한 조작을 덮어 가리려는 심리적, 기술적 책략, 기계와의 긴밀한 유대, 노동 착취, 명성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 등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아담슨의 작업은 주변부에 압전하게 앉아 있는 순수한 이미지의 공예를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사기꾼의 이미지로 변환시켜 역사의 중심에 등장시키려는 것일까?

공예의 순수한 이미지와 관념이 은폐하고 있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작업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의 '폭로'를 통해 제작에 수반된 다층적인 미스터리들이 해명되고, 이로써 그동안 침묵하거나 없는 줄만 알았던 인간, 비인간 사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준 대상, 매개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하여 공예와 공예의 역사를 새로이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예에 대해 관념적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행위자들을 모아본다는 의미이다. 이들 인간-비인간 행위자는 전적인 자연, 즉 순수한 물질성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사회화 되어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권력 관계와 정당성에 따라 구성되는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보다 더 자연화 되어 있고, 더욱 담론적이다. 이들의 연결망을 의미 발생을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자 한다면,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대등하게 서사구조를 지녀야 한다. 공예가

어느 한편으로 귀속되지 않고 준 대상 차원에서 물질과 기술, 시장, 기계 등에 온전히 결합된다고 해서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 준 대상을 증폭시켜 가면 갈수록 공예를 비롯한 모든 학문은 관념상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현실적인 역사를 확보하게 된다.

6. 전선에 선 디자인

'전선에 선 과학' 및 '전선에 선 공예'와 마찬가지로 '전선에 선 디자인(Design in Action)'이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훨씬 실제적으로 다가올 텐데, 이러한 사례 분석은 실상 일반화된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 재조정된 인류학을 통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기본으로 다수의 자료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현장 조사 결과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위에서 살펴본 글렌 아담슨의 분석을 통해 공예 개념 형성의 전선에서 어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780년경 스코틀랜드 폴커크의 캐런 컴퍼니는 디자이너 로버트 애덤과 협업하여 주철 스토브를 제작한다. 아담슨이 이 하나의 사실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이것은 근대 가내 설비의 최신 상품이다, 2) 이 상품은 스타일과 기능성, 물질성 면에서 근대적이다, 2-1) 주철 주물은 수세기 동안 화덕이나 난로의 후면 벽판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2-2) 17세기 중반부터 조립 주철판은 상자 모양의 스토브

옆면에 사용되었다, 2-3) 캐런 컴퍼니의 주철 스토프는 이전과 달리 코크스 재료를 이용했다, 2-4) 또한 이 스토프는 증기기관을 도입하여 제작되었다, 2-5) 새로운 재료와 기술력을 통해 불순물 없이 미세하게 주철을 변형시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3) 주철 제련과 주조 작업은 많은 숙련공들이 필요했다, 3-1) 파트너였던 석공, 벽돌공, 물방아 목수장인, 풀무장인은 서로에게 작업과 관련된 글을 썼다, 3-2) 목형공들도 스토프 제작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주물을 위한 나무 모형을 제작하도록 요청 받았다, 4) 연구자 엘렌 마리 스나이더는 빅토리아 시대 철제 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산업에서 가장 숙련된 노동자들 중 몇몇은 철 주물 분야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 재료는 근대 진보의 네러티브에서 배제되었다, 6) 장인 역시 배제되었다, 7) 대규모 주철 주조는 숙련공들의 팀 작업으로 기록되지 않고 한 명의 엔지니어가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에서 영웅이 되는 서사로 이어졌다, 8) 주철은 연철과 달리 대장장이의 손작업으로 수정 작업을 할 수 없다, 9) 아담슨은 이를 바르트의 '운동(movement)' 개념에서 차용하여 주물의 운동은 전체 제작 과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10) 또한 아담슨은 여기서 1860년대 새뮤얼 스마일스가 주철의 발명을 두고 장인적 과정이 산업적 과정으로 대체된 경우라고 지적한 것을 인용한다, 11) 캐런 컴퍼니의 주철 스토프는 화병 형태가 중앙에 있고, 목공 작업을 모방한 기둥의 가장자리를 따라 물덩이 이어지고, 오르몰루 받침대를 모방한 늘어진 끈 모양으로 머리 부분이 되어있고, 바닥 부분에 환기구가 있다, 12) 주철의 속성은 철제 공예 분야가 레이스 공예나

섬세한 자연물을 모방하는 경향으로 흐르는데 영향을 주었다, 13) 이에 대해 한 역사가(G. Himmelheber)는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이 생산되던 주철에 대한 19세기 행복 추구의 열정은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이 재료와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졌다'고 서술하였다, 14) 이런 변화는 근세의 트롱프뢰유 작품과 비슷해 보인다, 14-1) 트롱프뢰유가 관람객에게 속임수를 찾아내도록 자극하는 모방 기법을 사용하는 반면, 철 스토프는 관람자가 곧바로 주철이 어떤 형태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14-2) 트롱프뢰유는 재료에 대한 공예를 승리를, 주철은 공예에 대한 재료의 승리를 보여준다, 15) 주철 제조로 장인과 대장장이가 구분된다, 16) 1770년대 초 더비의 조셉 라이트는 금속 성형 과정의 모습을 다섯 점의 시리즈 작품으로 묘사한다, 16-1) 캔버스의 초점은 빛을 발하는 철 주괴에 맞춰있고, 이 빛은 사람들이 등글게 모여 있는 곳을 비추고 있다, (...) ²⁵⁾

아담슨의 분석 작업은 이후로도 산업화 과정에 동참하는 노동자들의 우아한 모습과 대장장이의 투박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이미지, 당대 역사가들이 산업 노동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한 반면, 수공 대장일에는 무관심하게 대한 일 등을 계속 지적하며 이어진다. 아담슨의 이 같은 작업은 공예의 순수한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여기에는 캐런 컴퍼니의 저자성이나

25 글렌 아담슨, 『공예의 발명』, pp.148-153

디자이너의 정체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재료의 변형 가능성, 제작 기술과 기계, 숙련공들의 역할, 숙련공에 대한 인문학자의 평가, 숙련공에 대한 사람들의 문화적, 무의식적 인식, 이를 드러내는 예술작품, 일련의 과정을 보편적 의미로 담아내는 철학적 개념, 역사가의 언급, 모방 양식 비교, 당대 노동자의 상징적 이미지 등 여러 인간-비인간 사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당대 주철 주조 현장의 역사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단적으로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이지 않다. 재료는 기술과 융합하고, 숙련공의 노동과 결합된다. 이 하나의 사건은 단청적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의 여러 의식적, 무의식적 인식과 감각적 이미지들, 서사구조 등을 생성시킨다. 이들에 대한 철학적 담론과 예술적 재현물 역시 빠질 수 없다.

아담슨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화된 대칭성에 따라 전선에 선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의식과 무의식이 보다 많은 인간-비인간 개체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을 발명, 개발, 혁신 등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라투르의 말마따나 중요한 것은 정작 이러한 용어들이 “큰 쓸모는 없다”²⁶⁾는 점이다. 어떠한 해야 하는 자연이나 사회가 있을 수 없듯이, 반드시 어떠한 해야 한다는 디자인이란 없다. 다만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체가 있을 뿐이다. 번역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일한 블랙박스로

안정화되어 논쟁이 종결되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역시 안정적인 표현과 더불어 출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견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를 다시금 해체하려는 도전적인 번역 작업이 일어날 것이다. 디자인 실험과 연구는 과연 자신의 항구적인 정체성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곧 인간-비인간의 유동적 집합체임을 볼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관념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더욱 살아있는 자신이 되는 자기 초월적 운동을 디자인과 디자인 연구는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주체의 무의식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운동하는지를 정리하는 가타리의 말은 (우회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무의식이란 우리 주위의 어디에나, 즉 몸짓에서, 일상적 대상에도, 텔레비전에도, 기상 징후에도, 더욱이 당면한 큰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싶다. (...) 따라서 무의식은 개인의 내부에서 그 사람이 세계를 지각하거나 자신의 신체나 자신의 영토나 자신의 성을 체험하는 방식에서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이나 학교나 이웃이나 공장이나 경기장이나 대학 등의 내부에서도 작동한다. (...) 무의식은 미래로 향한 채 가능성 자체, 언어에서의 가능뿐만 아니라 피부, 사회체, 우주 등에서의 가능성을 자신의 핵심으로 지니고 있다.²⁷⁾

26 브루노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p.213

7. 결론

ANT의 이론적 기초인 라투르의 근대성 비판 작업과 준 대상 개념을 검토하고, ‘전선에 선 디자인’ 혹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의 디자인’ 영역을 구성할 준 대상들을 근대 ‘공예’ 영역의 성립 과정 속에서 살펴보았다. 블랙박스화된 전통적인 공예 개념을 해체하고, 기존에 형성된 권력 관계를 새로이 배치하려는 아담슨의 기획은 ANT의 기본 방향을 (그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잘 반영하고 있다. 최소한 그에게 공예는 관성적으로 생각하듯이 인간의 비밀스러운 손기술에 의존하거나 중세의 생산 스타일에 따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계약과 기계 문명, 분업 등의 근대적 조건 하에서 발명된 것으로 설명된다. 공예에 대한 기성의 관념을 전복하기 위해 아담슨은 단지 장인이나 디자이너의 능력이나 창의력만이 아니라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자들, 계약 내용, 대중의 욕구, 학문적 규정, 역사적 조건 등 그동안 특별히 조명되지 않았던 여러 인간, 비인간 개체들을 불러 모았다. 그가 불러 모은 인간-비인간 연합체가 기성의 공예 개념보다 더 낫지 못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가치판단은 뒤로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권력과 욕망이 전면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ANT는 이에 대해 선악 혹은 호불호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권력 관계나 욕망의 배치에 저항하는 또 다른 의식이 튀어나와 번역 과정을 거쳐 새로운 동맹 맺기에 성공하여 안정화되면 우리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 상식은 그것으로 다시 바뀔 것이다. 이렇듯 ANT의 주안점은 가치의 우열이 아닌 동맹의 규모, 즉 얼마나 많은 인간, 비인간 개체들을 연합 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라투르의 철학적 기획이 ‘물정치(Thing Politics)’라는 정치 실험 모델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언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전선에 선 디자인(Design in Action)’이 실제 디자인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동맹을 맺고 또 어떠한 번역 과정을 거쳐 일상에서 하나의 광범위한 삶의 양식으로 블랙박스화되는지, 그 전모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신승철, (2017), 『구성주의와 자율성』, 알렙
- 홍성욱 엮음, (2010), 『인간·사물·동맹』, 이음
- 글렌 아담슨, (2017), 『공예의 발명』, 김정아 외 옮김, 미진사
- 브루노 라투르,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 갈무리
- 브루노 라투르, (2016), 『젊은 과학의 전선-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황희숙 옮김, 아카넷

27 펠릭스 가타리, 『기계적 무의식』, 윤수중 옮김, 푸른숲, 2003, p.26; 신승철, 『구성주의와 자율성』, (알렙, 2017), p.258 이하 재인용

- 펠릭스 가타리, (2003), 『기계적 무의식』,
윤수중 옮김, 푸른숲
- John Law, (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in *Systems Practice*
5(4)
- 민수홍, (2019), 「사물의 문화,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의 상호구성성
이해 -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이해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권 1호,
한국기초조형학회
- 이정우, (1995), 「미셸 세르와 헤르메스의
철학」, 『철학과 현실』, 제27호,
철학문화연구소